

1214(수) 히브리서 8-10장 더 좋은 약속, 새 언약

예수님은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는 분입니다.
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
그분이 주신 옛 언약, 율법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.
제사장과 제사제도를 폐하신 것은 나빠서가 아니라,
<더 나은 것, 더 나은 일>을 위함입니다(8:1-6).

율법과 옛 언약은 소임을 다 하였습니다(8:7-13).
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.
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,
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.

그렇다면 <더 나은 일, 더 나은 것>은 무엇입니까? (8:6)
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,
약속하셨던 <죄 사함>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(8:12, 렘31장).
예수님은 이를 위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,
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(9:11-22).

죄 없으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대속은
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했습니다.
더 이상의 제사나 피 흘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
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.
(2:8, 8:13, 9:23-10:18, 시8:6, 110:1)

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.
이제 성도들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
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.
(10:19-22, 렘31:33)

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까?

- ❶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모두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?
- ❷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히브리서 8-10장